

[98 JCC (예수공동체축제: Jesus Community Celebration)]

특별새벽기도 /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5)

처소를 예비하시는 예수님

[본문 요한복음 14:1-7]

하용조 목사/ 페이지수: 6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오늘 다섯번째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째날은 ‘한 알의 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깨어짐’이었습니다. 깨어짐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새는 알을 까고 나옵니다. 그 알이 깨어져야 나올 수 있습니다. 옛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습니다. 옛 사람을 벗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알의 밀, 깨어짐,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둘째날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섬김의 도를 배웠습니다. 참 기쁨은 섬김에서부터 옵니다. 당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기쁘지 않은 이유는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섬김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섬김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남을 돕고 섬기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선생과 주가 되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셋째날 우리는 복음의 배신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기근은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배신을 겪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 중 ‘배신의 벽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한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배신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소설입니다.

삶 속에서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에게는 모두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넷째날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평안

오늘 다섯 번째 날입니다. 14장 1절~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두가지 사실을 배우길 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죽을 것인가를 알면 똑바로 삽니다.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엉망으로 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최후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3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정직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심각하거나 진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멋진 날은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입니다. 진실로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입니다. 장례식은 한 인생의 꽃입니다.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천국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죽은 후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은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천국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을 예비하러 가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예비하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즈음 뉴에이지가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혼탁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흥미가 많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세계같은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정신세계와 관련된 책을 발간하는 많은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 대부분은 뉴에이지에 대한 책입니다.

인간이 죽은 후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철학에서의 귀신론은 혼이 떠돌아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은 죽은 후 곧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성도의 죽음은 아름답다고 시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해외여행과 같이 한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가게 될 때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마침 아는 사람이 있어서 고향에서 출발할 때부터 모든 수속을 해주고 여행지까지 안내를 도맡아서 친절하게 해준다면 참으로 편안하고 안심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후 갈 곳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하며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을 때에는 천사가 동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진실한 기도의 사람들은 평안 가운데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천군천사가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친히

하나님의 우편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안심하고 죽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의 축복

천국이 있는 사람의 축복은 죽음 이후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피곤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아무리 피곤해도 갈 곳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안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갈곳이 없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안심하는 마음입니다. 안심하는 마음을 가리켜 평안이라고 합니다. 안정이 되면 평안이 있습니다. 안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안해 집니다. 미래를 알면 평안합니다. 미래를 모르면 불안합니다. 죽음 후의 세계를 알면 평안합니다.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삶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자꾸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의 축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대감과 흥분입니다. 감격과 기쁨입니다.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밤이고, 태풍이 오고, 죽음의 길인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밝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배고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와 역경이 있어도 마음에 충만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에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녀와 민족이 변할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민족이 잘 될 것을 믿으십시오. 현재 우리 민족의 상황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따지면 불안합니다. 우리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이길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대하에는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서에도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경제위기가 3년 내에 끝나길 바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대감, 자녀에 대한 기대감, 민족에 대한 기대감, 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저는 고등학교 때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진학하지 못하고 평소 농촌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축산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깊은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후 저의 마음에는 꿈과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목사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것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뿐입니다.

저는 10년 후의 저와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해있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정말로 멋지게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일을 하다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계산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살지만 저의 관심사는 천국에 있습니다. 제가 갈 곳은 그곳입니다. 그곳에 갈 것을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임시로 머무는 것입니다.

세상은 임시로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마치 여관과 같습니다. 조금 잘 사는 사람은 호텔에, 못 사는 사람은 여관에서 잠자는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이 호텔같은 호화로운 삶이든 여관같은 삶이든 이곳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어떠한 확신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돈도 외모도 명예도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우주의 왕자와 공주와 같은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믿기에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느냐? 라고 묻습니다. 저는 기대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한달 후 일년 후를 기대합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보면서도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헛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경제위기로 너무도 어려운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안심하기 때문에 기대감과 흥분과 감격이 있습니다. 자신감과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

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천국을 예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5,6절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입니다. 석가는 ‘나는 니르바를 가르키는 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길을 가리키는 손이었습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는 진리를 가리키는 손입니다. 그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어찌보면 예수님처럼 오만하게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길을 가리키는 손이요’와 ‘내가 길이다’ 이 둘 중 어떤 것이 더 겸손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은 하나님이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참람하다고 말하며 웃을 짓고 예수를 죽이려 했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신병자이든지, 사기꾼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이 셋중의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열심히 주장했다면 그는 정신병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알고도 그렇게 말했다면 사기꾼 일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구세주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천국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 갈 곳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천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생에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어떤 삶을 살든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살게 해 주시고 염려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게해 주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살게해 주시고 안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열매를 맺으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출처 - 온 누 리 신 문 (<http://news.onnuri.or.kr>)